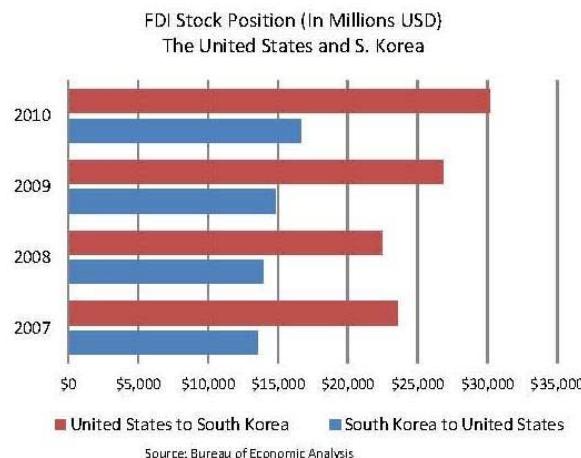


### 한국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 (FDI)

2010년 말 한국의 대미 외국인 직접 투자는 시가총액 166억 달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FDI 투자순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의 미국투자는 2010년에만 15억 달러로 전년도 5억 1백만 달러 투자에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분야는 금융, 도소매업 뿐만 아니라 기계, 운송장비, 식품 등 제조업까지 걸쳐져 있다. 2009년 한국 소유기업의 미국자회사는 2만 8천 여명의 미국인력을 고용했고 미국 수출 107억 달러를 이루는데 기여했다. 최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투자유입을 점점 더 증가시킬 것이다.



### 한미 양국간 FDI 현황 (US \$ millions)

U.S.-South Korea Bilateral FDI (US \$ millions)

FDI STOCK POSITION	2007	2008	2009	2010
South Korea to United States	13,533	13,945	14,822	16,610
United States to South Korea	23,558	22,426	26,813	30,165
FDI FLOW	2007	2008	2009	2010
South Korea to United States	4,751	1,440	501	1,567
United States to South Korea	821	2,157	3,678	2,337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형 투자 (Greenfield FDI) 최근 사례

2003년 10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약 33,69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173억 3천만 달러의 자본적 지출과 함께 183건의 투자가 이뤄졌다. FDI의 최근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11년 11월** – 한국전력공사는 네바다 주 볼더시에 300MW 전력발전시설을 건설하는데 약 1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8만 5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다.
- **2011년 9월** – 만도는 조지아 주 호간스빌에 42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2억 달러를 첨단기술 자동차부품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 **2011년 3월** –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사는 텍사스 주 코펠에 패킹 및 유통센터를 여는 계획을 발표했다. Samsung Mobile의 가장 큰 미국 핸드폰 유통센터인이 시설에서 500명의 직원이 미국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131.4 million의 자본투자가 예상된다.

### SelectUSA

SelectUSA는 미 상무부 내 국제무역국(ITA) 산하 Commercial Service 내의 부서이며, 대미 비즈니스 투자를 증진시키고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electUSA는 미국의 주와 지역 경제개발국을 지원하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대미 투자자에게 미국 정부 기관들의 단일화된 창구를 제공합니다. SelectUSA는 국가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적인 중립을 엄격히 지킵니다. SelectUSA는 경제개발국(EDO)과 미국 및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미 투자의 혜택을 홍보
- 미국 투자환경에 대한 질의에 답변
- 연방정부의 법규정과 관련된 투자자의 고충을 처리
- 국제투자 경쟁 속에서 미국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수행
-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는 법규와 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현재 미국에 투자중인 기업들에게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